



김윙희

살균된 세계에서 상상력의 세계로
-바슐라르, 이미지의 시학

아트앤스터디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문학의 힘을 믿습니다.

인문학 · 문화예술 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살균된 세계에서 상상력의 세계로 - 바슐라르, 이미지의 시학

이 강의에서는 프랑스 현대 철학의 거장인 바슐라르의 사상을 상상력과 이미지 개념을 중심으로 살핀다.

학습 목표

- 바슐라르의 생애
- 바슐라르의 미학, 예술론의 특징
- 바슐라르의 상상력 개념
- 종래의 철학 사상과 바슐라르의 차이점

강사 소개

• 김윙희

미학자. 전 서울예술대학 교수. 미학과 예술론, 신화와 상상력 등에 관한 저술과 강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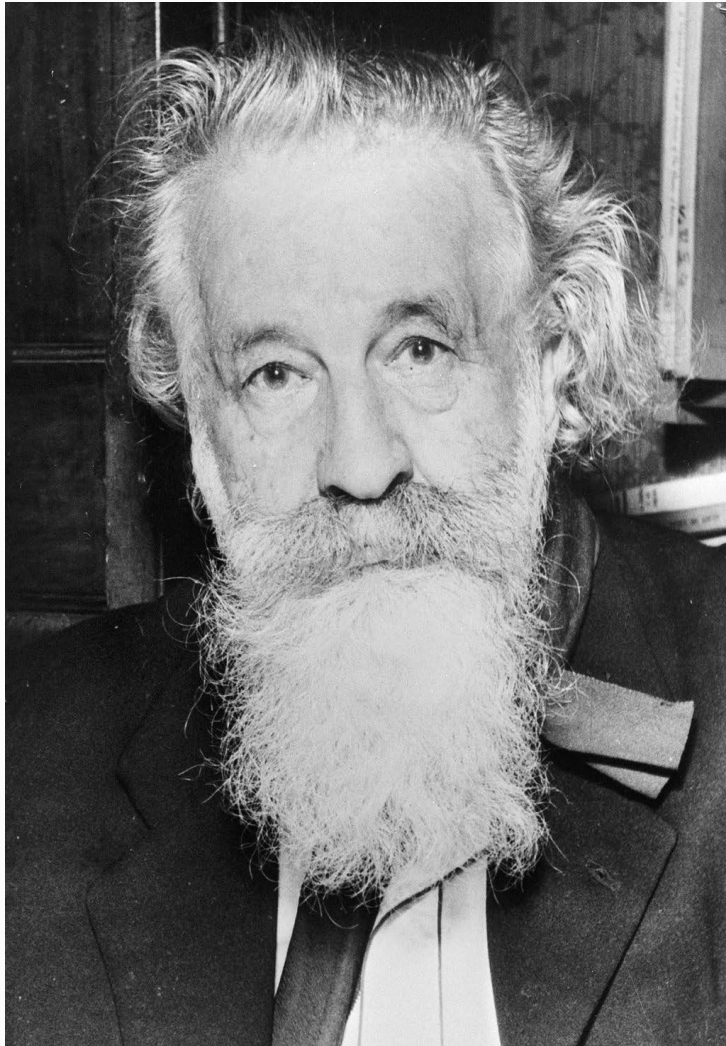
저서: 『예술, 세계와의 주술적 소통』, 『삶의 길목에서 만난 신화』 등

강의 보기



- **제목 :** 살균된 세계에서 상상력의 세계로 바슐라르, 이미지의 시학
- **강사 :** 김윤희 (미학자)
- **구성 :** 25분

지식 노트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

프랑스 철학자로 과학 인식론과 문예비평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현상학과는 구별되는 인식론의 전통에서 자신의 독자적 사상을 전개하였으며 주저로는 『합리적 유물론, (Le matérialisme rationnel, 1953)』, 『공간의 시학, (La poétique de l'espace, 1957)』 등이 있다.

강의 노트

가스통 바슐라르 (Gaston Bachelard, 1884~1962)

프랑스 철학자로 과학 인식론과 문예비평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현상학과는 구별되는 인식론의 전통에서 자신의 독자적 사상을 전개하였으며 주저로는 『합리적 유물론, (Le matérialisme rationnel, 1953)』, 『공간의 시학, (La poétique de l'espace, 1957)』 등이 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바슐라르는 생계를 위해 우체국에서 일하면서도 여가를 이용해 수학, 물리학, 화학 등을 꾸준히 공부했다.

바슐라르는 1914년 7월에 결혼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결혼 3주 만에 입대한다.

과학철학에서 예술철학으로

“과학의 실용적 교육에서 철학 교육으로 옮겨왔는데도 나는 완전히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불만족의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디종에서 한 학생이 ‘나의 살균된 세계’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사람은 살균된 세계 속에서는 행복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 세계에 생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들끓게 해야 합니다. 상상력을 회복시키고 시를 발견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슐라르의 강의, <상상력의 형이상학>의 서두 중에서

살균된 세계→ 과학의 세계

미생물이 들끓는 세계→ 예술의 세계

바슐라르는 개별 세계로부터 구체성을 박탈하여 추상화되고 개념화된 과학을 보편성을 위한 “살균된 세계”라고 일컬었다.

내 머릿속에 추상화되어 인식된 사과라는 개념과 내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과는 다르다.

모든 구체성을 제거한 극도로 추상화된 개념이 수학 개념이다.

과학의 언어는 무미건조할수록 확실하다.

과학이나 수학은 보편성을 추구해야 하는 학문적 특성 때문에 개별적 상황에 대한 모든 구체성을 담아낼 수 없다.

보편적 진리를 오랫동안 논구해 온 철학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추상화되고 개념화된 사고에 익숙하게 되었다.

과학과 수학 그리고 철학적 사유와 같은 살균된(멸균된) 세계에서 인간은 감각이나 상상력 등과 같은 인간의 자연성을 제어할 것을 강요당했다.

인간은 살균된 세계에서 행복할 수 없다는 깨달음과 함께 바슐라르의 관심사는 초기 과학철학에서 시와 이미지라는 예술, 미적 요소로 옮겨간다.

바슐라르는 살균된 세계가 아닌 자연의 번식이 가능한 살아 있는 세계를 시적 세계, 이미지의 세계로 보았다.

인간의 영혼은 논리적이거나 개념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만남이나 사건의 순간에 일어나는 인간의 정신적인 무엇을 형성한다.

“상상력은 영혼의 기능” -바슐라르

근대 이후 많은 철학자들은 상상력을 영혼과 결부시키기보다는 인지 능력의 한 계기로 보았다.

독일 관념론의 대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상상력을 ‘구상력’으로 보았다.

상상력=구상력=상을 그려내는 능력

칸트는 상상력을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들어온 지각 자료를 통합하여 표상을 그려내는 능력으로 보았다.

표상(representaion) 다시[re-] 현전[present]하다

칸트는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 표상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 작용인 인간의 지각 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바슐라르는 기존의 철학적 입장에서 인식 능력의 한 축을 이루는 상상력(=구상력)이 아닌 경험하지 못한 요소들을 떠오르게 만드는 능력으로 상상력(=창조력)을 이해하였다.

상상력(imagination) - 이미지(image)를 만들어 내는 능력

이미지는 확정된 경계를 가지지 않고 희미하게, 주체와 대상 사이에 놓인다.

이미지는 대상과 마주친 영혼에 의해 생겨나는데 그 작용은 바로 '투사'와 '전이'이다.

내가 체험하는 물은 한결같은 과학의 개념적 물(H₂O)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 환경, 분위기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달라진다.

우리가 바다를 통해 보는 여러 이미지는 ‘바다’라는 외부 세계에서 떠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로부터 ‘투사(projection)’된 상에서 기인한다.

투사는 내부의 어떤 이미지를 외부 세계에 투영하는 것인데 외부로부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전이(轉移, transference): 자리나 위치 따위가 변하거나 옮겨짐

전이, 혹은 역투사란 외부 세계로부터 어떤 이미지들이 나라는 내면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양쪽 방향으로 일어나는 투사의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상상력은 투사와 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미지를 산출한다.

기존 철학자들이 볼 때 바슐라르가 제시한 이미지는 외부 세계라는 실체에 다가가지 못할 뿐 아니라,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는 감정의 영향을 받는 ‘열등한 것’이었다.

바슐라르가 제기했던 상상력의 움직임은 종래의 철학자들이 영원 불멸하는 진리가 될 수 없다며 제거하려 했던 감성의 영향을 포괄하고 있다.

바슐라르는 문학, 신화, 예술 등을 통해 인간의 상상력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창조하는 행위, 즉 이미지를 창출하는 방식을 연구했다.

학습 요약

- 바슐라르는 자신의 연구 초기에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인식론에 관심이 있었지만 후기에는 시, 문학, 예술, 이미지 등과 같은 미학, 예술학, 문예 비평과 같은 분야로 시선을 옮겼다.
- 바슐라르는 진리라는 보편적, 합리적, 정합적 사고를 좇아 과학과 같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사고에 익숙하게 된 철학을 “살균된 세계”라 보았으며 행복을 위해서는 “상상력의 세계”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칸트를 비롯한 근대 이후 많은 철학자들은 상상력을 “구상력”이라는 의미에서 표상을 만드는 능력으로 보았지만, 바슐라르는 이를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창출하는 “창조력”이라 보았다.
- 상상력은 “투사”와 “전이”를 통하여 주체와 객체,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사이에 위치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 이미지는 시간, 장소, 분위기, 주체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모호한 경계에 규정되지 않는 동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생성된다.

인문 퀴즈

1. 바슐라르는 과학과 철학에서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개념적이며 추상화된 세계를 ‘○○○ 세계’라 불렀다. 살아 있는 생명력이 상실된 무색무취의 세계로 사람이 행복을 찾기 어려운 이 세계는 무엇인가?

- (1) 살균된 세계 (2) 보온된 세계
(3) 보존된 세계 (4) 독립된 세계

2. 바슐라르가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연구하기 위해 참조했을 대상이 아닌 것은?

- (1) 시 (2) 회화 (3) 신화 (4) 수학

인문 퀴즈

3. 바슐라르는 상상력이 수행되는 방식으로 투사와 전이를 제시하였다. 다음 중 전이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 (1) 파도에서 하얀 백마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 (2) 사과를 내 동생을 닮았다.
- (3) 거울로 내 얼굴을 인지한다.
- (4) 하늘의 구름이 호랑이처럼 생겼다.

정답

1.(1) 2.(4) 3.(3)

3. 어떠한 매개 없이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는 ‘나’는 외부에 맺힌 거울의 상(像), 즉 이미지를 통해서만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 따라서 “나의 얼굴을 인지한다”는 것은 외부의 이미지가 내 안으로 투사되서야 비로소 ‘내 얼굴’을 알게되는 역투사, 즉 전이 의사례로 볼 수 있다.

이미지 출처

강의 보기

- Roger McLassus@ commons.wikimedia.org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2006-01-14_Surface_waves.jpg

지식노트

- Dutch National Archives, The Hague,
Fotocollectie Algemeen Nederlands Persbureau (ANEFO), 1945-1989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Gaston_Bachelard_1965.jpg

살균된 세계에서 상상력의 세계로 - 바슐라르, 이미지의 시학

강사: 김윤희

발행: (주)아트앤스터디

Tel: 02-323-1081

Fax: 02-323-1082

메일: biz@artnstudy.com

본 강의의 판권은 (주)아트앤스터디에 있습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Art*o*Study.com